

광주지역의 수의문화에 관한 의식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Shroud Culture in the Gwang-Ju Region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임 린
시간강사 김 은 정
교 수 김 용 서

Dept. of col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im, Lynn

Instructor : Kim, Eun Jung

Professor : Kim, Yong Seo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수의문화의 의식 양상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대상 및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survey conducted in the aspect of its preservation, composition, and preparation of the shroud among the new generations. The study shows :

First, in regard to its preservation, a good number of people answered that the traditional shroud should be kept, and believed the tradition should be preserved to paying their respect to their deceased.

Second, in regard to its composition, they preferred a simple shroud like a simple Korean traditional attire rather than the traditional intricate shroud.

Third, for the timing of purchase, again a good number of people favored to prepare those beforehand, and they would purchase them in any good opportunity they have.

Fourth,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among the people in the aspect of its preservation, composition and purchase, all of them were favored for the simplified shroud. And the most of the people favored for the preservation of the traditional shroud culture preferred to prepare the shroud beforehand.

주제어(Key Words): 수의(shroud), 보존(preservation), 구성(composition), 구매(purchase)

Corresponding Author: Lynn Yim, Department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0309 E-mail: lynn5651@hotmail.com

I. 서론

수의(壽衣·櫛衣)는 망자를 위한 의복으로 상례에서 생자(生者)의 상복(喪服)과 대별된다. 구체적으로 四禮便覽(이재, 1844)에서는 습의(襲衣), 소렴의(小斂衣), 대렴의(大斂衣)라고 하였으며, 사망 후 염습(斂襲)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의복과 부속품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수의는 전통성과 보수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수의를 제작하고 다루는 방법이나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전통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출토복식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수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출토복식에 대한 관심이 더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TV나 대중매체를 통해 출토유물의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여, 최근에는 파평 윤씨 일가의 출토복식이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출토복식은 상장례문화의 유물로 대부분 수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원과 보존처리에 의해 박물관 전시나 다양한 책자로 현대인들과 친숙하게 접하게 되었다.

현재 수의는 병원이나 장의전문업체에 의해 제작과 의식(儀式)이 일괄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실태가 현대인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현대인들의 수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현행 수의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의문화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정되기는 하지만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의 보존 및 종류, 구매에 관한 견해를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의 보존 견해가 구성 및 구매 견해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를 밝히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수의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의문화에 대한 의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수의를 제작하고 이를

다루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수의의 개관

수의는 넓은 의미에서 시신에게 사용되는 의복과 부속품 뿐만 아니라 소렴과 대렴시에 상의(上衣), 산의(散衣), 첩의(疊衣) 등의 역할을 하는 배우자(配偶者)나 친자(親子), 형제(兄弟), 봉우(朋友), 군(君)으로부터 제물로서 받은 수의(櫛衣)를 포함한다(이은주, 1998).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수의의 개념은 소렴과 대렴이 함께 행해지는 현행 상례 관행에 따라 시신에게 직접 입히는 의복과 부속품만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상례 관행에 맞추어 조선시대 예서(禮書) 중 근대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 사례편람(이재, 1844)을 중심으로 남자용 수의, 여자용 수의, 부속품으로 나누어 수의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자용 수의는 복건(幅巾), 망건(網巾), 심의(深衣), 답호(襜褕), 한삼(汗衫), 포오(袍襖), 단고(單袴), 고(袴), 늑백(勒帛), 대(帶), 소대(小帶), 이(履)를 사용하였다. 복건과 망건은 심의, 답호와 함께 쓰이는 관모이다. 이러한 형태는 심의를 대신해서 단령을 착용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삼은 현행 수의의 적삼에 해당되며, 포오는 포의 일종으로 긴 저고리이다. 즉, 솜을 넣어 둔 것으로 중치막(中赤莫)이나 동의(冬衣)의 종류이며, 요즘의 저고리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단고와 고는 속바지와 바지에 해당되고, 늑백은 행전을 가르킨다. 다시 말해 망자가 생전(生前)에 착용했던 의대(衣帶)와 관모를 모두 갖춘 형태로 수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자용 수의는 심의(深衣), 대(帶), 삼자(衫子), 포오(袍襖), 소삼(小衫), 상(裳), 고(袴), 단고(單袴), 채혜(彩鞋)를 사용하였다. 삼자는 속칭 당으로 길이는 무릎까지 이르고, 소매가 좁은 일상복이며, 현행

수의의 저고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포오는 남자인 경우와 같으며, 소삼은 몸에 가장 가까이 붙여 입는 옷으로 속적삼에 해당된다. 여기에 치마인상, 바지, 속바지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부속품으로는 엄(掩), 사(纒), 충이(充耳), 과두(褻肚), 떡목(幪目), 악수(握手), 말(襪), 모(冒), 거포(擧布), 욱(褥), 침(枕), 금(衾), 교(絞), 소낭(小囊)이 사용되었다. 이 중 엄과 사는 기록에만 보일 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유관순, 1990). 충이는 귀를 막는 것으로 대추씨만한 크기의 흰색 솜을 사용하였다. 과두는 속칭 요대로 배와 허리를 싸는 것이며, 떡목과 악수는 각각 얼굴과 손을 싸는 품목이다. 욱, 금, 교는 베개와 이불을 가르키는 것이며, 소낭은 명주로 5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이는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넣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주머니에 글씨를 구별하여 쓰거나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이(齒)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더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례편람에 제시된 수의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사용된 품목이며, 일반인들이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의 구성은 일반인들에게도 수의의 원형으로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며, 따라서 수의의 전통성이 유지되는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1985년 갑오경장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양문화의 도입과 함께 계급이 타파되고 사대부와 일반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사회현상에서 수의도 신분의 차별없이 간소화, 단순화 현상을 보였고, 1980년경부터는 수의의 기성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의의 원형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조효숙, 안지원, 2002).

2. 선행연구의 고찰

수의에 관한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전통 수의의 형태 및 종류, 소재, 치수 등을 밝히는 데에 중점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출토복식의 발굴에 의한 실측과 유물제시에 주안점을 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비해 현행 수의에 대한 연구는 유관순(1990), 임린·김용서(2001), 조효숙·안지원(2002),

조효숙·권영숙(2002) 등의 2000년대를 전후한 근래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수의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의 의식과의 관련성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수의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사람과 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의식조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관순(1990)의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전통수의 형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린·김용서(2001)의 연구에서는 수의의 형태가 남녀의 적삼에서 깃과 고름이 없는 형태로 단순화되고 있었으며, 여자바지 중 단속곳이나 부속품인 떡목 등도 형태가 간소한 방향으로 변형되었다.

수의의 구성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의 형태는 유관순(1990)의 조사에서 남녀모두 표의(表衣)인 두루마기, 도포, 원삼을 갖추는 전통적인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하여 표의를 제외하기도 하였다. 수의의 치수는 조효숙·권영숙(2002)의 조사에서 남녀모두 대, 중, 소의 구분도 없이 한가지 치수로 정형화되어 있었다. 또한 납품업체에 따라 치수체계가 달랐음은 물론 같은 업체 내에서도 가격대에 따라 치수차이가 있는 등 일관성이 없었고, 대체로 고가의 수의는 치수가 크고, 저가의 수의는 치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에서는 유관순(1990)은 삼베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 명주와 삼베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조효숙·안지원(2002)의 조사결과에서는 수의의 소재로 삼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삼베라 할지라도 원사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견직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중국산의 저품질 소재였다.

수의의 구매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매장소는 조효숙·안지원(2002), 조효숙·권영숙(2002) 등의 연구가 종합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장례문화의 변화에 의한 수의의 구매장소가 바뀌어감을 알 수 있었다. 구매가격은 조효숙·권영숙(2002)의 연구에서 10원대에서 390만원대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III. 조사대상 및 방법

수의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집단의 조건으로 일반인의 결혼 적령기 이상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성인 30대 이상 40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8월 5일부터 30일 사이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응답법을 사용하였는데, 수의문화에 관한 현대인의 의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반복된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수의 보존에 관한 5문항, 수의 구성에 관한 5문항, 수의 구매에 관한 8문항,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관한 6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여 346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누락된 것을 제외한 311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22.5%, 여자는 77.5%를 차지하였다. 연령 분포는 30대가 30.2%, 40대는 22.5%, 50대는 21.2%, 60대는 13.5%였으며, 70대 이상은 12.5%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력없음이 4.5%이었고, 초졸 12.5%, 중졸 10.6%, 고졸 28.9%, 대졸이상은 43.4%으로 집계되었다. 종교는 불교가 22.5%이었고, 기독교가 29.3%, 천주교 19%였으며, 무교와 기타 종교가 각각 24.8%와 4.5%를 차지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은 150만원 이하가 33.1%였으며, 150~250만원 정도가 34.7%, 250~350만원 정도는 21.2%, 350만원 이상의 고소득은 10.9%로 나타났다. 직업의 분포는 전업주부가 30.9%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중 사자가 27.3%, 전문직이 15.8%로 나타났으며, 농업도 10.6%를 차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χ^2 -검증, 교차분석 등의 통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IV. 수의문화의 의식 양상

1.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적 측면

남녀수의를 비롯한 부속품 등 상례시 사용되는 수의 형식의 전통성 보존에 관한 의식을 묻는 문항에는 조사대상자 311명 중 230명, 7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보존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응답자의 81명, 26%가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망자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서라고 하였고, 34%는 과거부터 전해오던 전통이므로 계승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다음 세계(내세)에 입어야 할 옷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6.1%, 기타 응답이 2.6%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요즘의 매장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1.3%가 화장을 하더라도 망자를 위한 옷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23%는 화장은 상례의식 중 일부분의 변화일 뿐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6.5%가 화장을 하자는 의견에 맞추어 수의 형식도 간소화된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수의의 형태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임린·김용서(2001)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그밖에 남녀수의가 현대인의 의복형태와 다르다(8.6%)는 의견과 수의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9.9%)도 있었다.

다음 <표 1>은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에 대한 인식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에 대한 의식차이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종교,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른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에 대한 의식차이를 살펴보면, 30대는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표 1〉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에 대한 의식차

보존 견해	이 유	빈도	비율(%)
보존해야 한다 (화장과 관련하여)	망자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131	57.0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이므로	79	34.4
	내세에서 입어야 할 옷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14	6.1
	기 타	6	2.6
	합 계	230	100.0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화장을 하더라도 망자를 위한 옷은 필요하므로	118	51.3
	화장과 수의 형식 보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53	23.0
	화장은 상례의식 중 일부분의 변화일 뿐이므로	50	21.7
	기 타	9	3.9
	합 계	230	100.0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남녀수의가 현대인의 의복형태와 다르므로	7	8.6
	수의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8	9.9
	화장과 함께 수의 형식도 간소화되어야 하므로	62	76.5
	기 타	4	4.9
	합 계	81	100.0

한다는 응답자가 61.7%,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가 38.3%로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의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에 40대와 50대는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1.4%, 60대는 92.9%, 70대 이상은 84.6%로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60대를 정점으로 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초졸의 94.9%가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학력없음이 78.6%, 중졸 81.8%, 고졸 75.6%로 대졸이상 학력의 응답자 64.4%보다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많이 갖고 있었다. 즉, 학력이 낮은 세대일수록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종교에 따른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불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의 84.3%가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뒤를 이어 천주교와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들은 각각 79.7%, 72.5%가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

해야 한다고 답해 불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서양에서 유입된 종교나 기타 신흥 종교에 비해 불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들이 보수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이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79.6%와 3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79.4%가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50~350만원 정도 소득층 응답자의 60.6%만이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답한 것보다 높은 수치로 소득격차가 많은 두 계층의 견해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다시말해 소득이 중간 정도인 계층보다 소득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은 집단이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의의 구성적 측면

수의의 구성적 측면에서 부속품 등을 제외한 현행 남녀수의는 전통수의 형태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으나, 화장과 같은 상장례문화의 변화에

〈표 2〉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보존해야 한다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합 계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30대	58	18.6(61.7)	36	11.6(38.3)	94	(100.0)	17.762***
	40대	50	16.1(71.4)	20	6.4(28.6)	70	(100.0)	
	50대	50	16.1(71.4)	16	5.1(28.6)	66	(100.0)	
	60대	39	12.5(92.9)	3	1.0(7.1)	42	(100.0)	
	70대이상	33	10.6(84.6)	6	1.9(15.4)	39	(100.0)	
	합 계	230	74.0	81	26.0	311	100.0	
학력	학력없음	11	3.5(78.6)	3	1.0(21.4)	14	(100.0)	16.532**
	초졸	37	11.9(94.9)	2	0.6(5.1)	39	(100.0)	
	중졸	27	8.7(81.8)	6	1.9(18.2)	33	(100.0)	
	고졸	68	21.9(75.6)	22	7.1(24.4)	90	(100.0)	
	대졸이상	87	28.0(64.4)	48	15.4(35.6)	135	(100.0)	
	합 계	230	74.0	81	26.0	311	100.0	
종교	불교	59	19.0(84.3)	11	3.5(15.7)	70	(100.0)	11.796*
	기독교	66	21.2(72.5)	25	8.0(27.5)	91	(100.0)	
	천주교	47	15.1(79.7)	12	3.9(20.3)	59	(100.0)	
	기타	58	18.6(63.7)	33	10.6(36.3)	91	(100.0)	
	합 계	230	74.0	81	26.0	311	100.0	
소득 수준	150만원이하	82	26.4(79.6)	21	6.8(20.4)	103	(100.0)	8.404*
	150~250만원	81	26.0(75.0)	27	8.7(25.0)	108	(100.0)	
	250~350만원	40	12.9(60.6)	26	8.4(39.4)	66	(100.0)	
	350만원이상	27	8.7(79.4)	7	2.3(20.6)	34	(100.0)	
	합 계	230	74.0	81	26.0	311	100.0	

*p<.05, **p<.01, ***p<.001

따른 현대인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한복이나 현대 의복형태와 같은 변형된 수의 형태를 질문지에 포함시켰다. 또한 남자수의를 바지, 저고리, 속바지, 속적삼을, 여자수의를 치마, 저고리, 속바지, 속치마, 속적삼을 기본형으로 하였다. 그 결과 기본형을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7.0%였고, 여기에 두루마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7.0%였다. 또한, 남자는 도포와 관모, 여자는 원삼에 족두리까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의가 전통적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모두 38.3%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생활한복처럼 간소화된 형태를 바라는 응답자가 38.6%, 현대 의복형태와 같아도 상관없다는 응답자가 9.6%로 조

사되어 모두 61.7%가 변형 수의 형태를 선호하였다.

〈표 3〉 수의 형태에 대한 인식차

수의 형태	빈도	비율(%)
남녀모두 기본형* 구성	53	17.0
남녀모두 기본형에 두루마기를 갖추	53	17.0
남녀모두 기본형에 두루마기와 도포나 원삼·관모를 갖추	13	4.2
생활한복처럼 간소화된 형태	120	38.6
현대 의복형태와 같아도 상관없음	30	9.6
기 타	42	13.5
합 계	311	100.0

*기본형-남자(바지·저고리·속바지·속적삼), 여자(치마·저고리·속바지·속적삼)

〈표 4〉 수의 형태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전통수의 형태		변형수의 형태		합 계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30대	21	7.0(22.3)	72	23.2(76.6)	94	(100.0)	36.752*
	40대	29	9.3(41.4)	41	13.2(58.6)	70	(100.0)	
	50대	26	8.4(39.4)	40	12.8(60.6)	66	(100.0)	
	60대	21	6.8(50.0)	21	6.8(50.0)	42	(100.0)	
	70대이상	21	6.8(53.8)	18	5.7(46.2)	39	(100.0)	
합 계		119	38.3	192	61.7	311	100.0	
종교	불교	37	11.9(52.9)	33	10.6(47.1)	70	(100.0)	38.130 **
	기독교	31	10.0(34.1)	60	18.6(65.9)	91	(100.0)	
	천주교	28	9.1(47.5)	31	10.1(52.5)	59	(100.0)	
	기타	23	7.5(25.3)	58	21.8(63.7)	91	(100.0)	
	합 계	119	38.3	192	61.7	311	100.0	

*p<.05, **p<.01

즉, 현행 전통적인 수의 형태가 현대인들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은 수의 형태에 대한 인식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수의 형태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과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4〉와 같이 연령에 따른 수의 구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30대는 76.6%가 변형된 수의 형태를 원하였다. 즉, 생활한복처럼 간소한 형태나 현대의 복형태에서 변형된 것과 같은 수의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40대와 50대에서도 보였는데, 각각 58.6%와 60.6%가 변형 수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60대, 70대 이상이 되면서 전통 수의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변형수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수의 형태의 견해는 불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가 가장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었는데, 응답자의 52.9%가 전통 수의 형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나 천주교, 기타 종교를 갖는 응답자들은 각각 65.9%, 52.5%, 63.7%로 변형 수의 형태에 더 많은 응답을 하여, 종교적 특성이 수의 형태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수의 치수에 대한 질의에서는 조효숙·권영숙

(2002)의 조사에서처럼 현행 남녀수의가 대, 중, 소의 구분도 없이 한가지 치수로 정형화되어 있거나 납품업체에 따라 치수체계가 다른 것에 반해 현대인들은 〈표 5〉에서와 같이 대·중·소 정도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치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19.0%였으며, 맞춤 수의의 치수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18.6%로 나타나 현행 수의의 치수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응답자도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

수의 소재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의 현행 수의의 제작 실태를 중심으로 질의하였는데, 전통 수의에 비해 명주를 선호하는 비율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삼베는 28.6%로 가장 선호하는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고, 명주와 삼베를 함께 사용하는

〈표 5〉 수의 치수에 대한 인식치

수의 치수	빈도	비율(%)
대·중·소 정도의 분류가 필요하다	185	59.5
치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59	19.0
맞춤 수의의 치수제도가 필요하다	58	18.6
기 타	9	2.9
합 계	311	100.0

〈표 6〉 수의 소재에 대한 선호도

수의 소재	빈도	비율(%)
명주(안팎모두)	43	13.8
옥양목(안팎모두)	18	5.8
삼베(안팎모두)	89	28.6
명주(겉)와 삼베(안)	74	23.8
옥양목(겉)과 삼베(안)	30	9.6
무명(안팎모두)	43	13.8
한지	10	3.2
기 타	4	1.3
합 계	311	100.0

경우도 2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유관순(1990)의 삼베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조효숙·안지원(2002)의 수의 소재로 삼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조사와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명주로 수의를 만들면 시신의 뼈에 눌러 붙는다', '모시를 사용하면 자손의 머리가 희어진다.'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구전에 의한 삼베의 선호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전은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격대가 비싼 전통 견직물 수의보다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개량형 삼베 수의를 보급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삼베 선호현상에 의해 품질이 좋은 삼베만으로 제작된 값비싼 수의보다는 경제적으로 저렴한 옥양목에 삼베로 안감을 한 수의를 선호하는 경우도 9.6%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이유와 매장시 쉽게 썩을 수 있는 한지도 비교적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은 수의 소재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 것이다.

3. 수의의 구매적 측면

수의를 구매하거나 준비하는 시기에 대해 절의하였는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03명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하였고,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명, 34.7%를 나타내

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식이나 주위에 번거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한다는 답이 45.3%로 가장 많았고, 일이 닳쳤을 때의 경황이 없음을 대비하는 이유는 41.4%로 나타났다. 이는 수의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준비할 때 선택의 여지없이 비싼 수의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8.4%)나 미리 준비하면 오래산다는 등의 속설 때문(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또한 미리 준비한다면 그 시기에 대해 몰랐을 때, 응답자의 37.4%가 윤달이나 길일을 택한다고 하였지만, 과반수가 넘는 55.7%의 응답자는 기회가 되었을 때 언제나 준비한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농경생활에서 유래되어 가장 한가한 윤달이나 길일을 택하여 수의를 제작했던 관습이 사라지고, 현대의 변화된 생활문화에서 비롯된 준비관행으로 풀이되었다.

반면, 수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성화된 수의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수의의 제작 실태와 유통구조에 의한 것으로 현대인들이 과거와는 변화된 방법으로 수의를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의업체에 일괄처리하도록 위탁하면 된다는 응답자가 20.8%였으며,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유쾌하지 않다는 응답도 2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7〉은 수의 준비에 대한 의식차를 제시한 것이다.

수의 준비에 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수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의 보존이나 구성 견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0대 58.5%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수치도 높아져 40대는 68.6%, 50대는 57.6%, 60대는 76.2%, 70대 이상은 76.9%로 조사되었다.

종교에서는 불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의 85.7%가 수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천주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의 76.3%가 그 뒤

〈표 7〉 수의 준비에 대한 의식차

준비 견해	이 유	빈도	비율(%)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준비시기와 관련하여)	일이 닳았을 때 경황이 없으므로	84	41.4
	자식이나 주의에 번거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93	45.8
	수의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준비할 때 비싼 경우가 많아서	17	8.4
	미리 준비하면 오래산다는 등의 속설 때문에	6	3.0
	기 타	3	1.4
	합 계	203	100.0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윤달이나 길일을 택해서	76	37.4
	기회가 되었을 때 언제나	113	55.7
	기 타	14	6.9
	합 계	203	100.0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기성화된 수의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49	45.4
	장의업체에서 일괄처리하도록 위탁하면 되므로	22	20.4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유쾌하지 않아서	29	26.9
	기 타	8	7.4
	합 계	108	100.0

〈표 8〉 수의 준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합 계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30대	55	17.7	(58.5)	12.5(41.5)	94	(100.0)	16.009*
	40대	48	15.4	(68.6)	7.0(31.4)	70	(100.0)	
	50대	38	12.2	(57.6)	9.0(42.4)	66	(100.0)	
	60대	32	10.3	(76.2)	3.2(23.8)	42	(100.0)	
	70대이상	30	9.6	(76.9)	2.9(23.1)	39	(100.0)	
	합 계	203	65.3	108	34.7	311	100.0	
종교	불교	60	19.3	(85.7)	3.2(14.3)	70	(100.0)	31.340***
	기독교	53	17.0	(58.3)	12.2(41.7)	91	(100.0)	
	천주교	45	14.5	(76.3)	4.5(23.7)	59	(100.0)	
	기타	45	14.5	(49.5)	14.7(50.5)	91	(100.0)	
	합 계	203	38.3	108	61.7	311	100.0	

*p<.05, ***p<.001

를 이었으며, 기독교와 기타 종교를 갖는 응답자들도 각각 58.3%, 49.5%가 수의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수의를 구매했거나 구매하게 될 장소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수의를

제작할 줄 아는 지인(知人)이 만드는 경우가 21.2%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응답자들이 과거와 같이 가정에서 수의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이웃이 모여 윤달이나 길일을 택해 함께 수의를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복점이나 주단점에서 만드는 경우는 11.8%로 나타났으며, 장

〈표 9〉 수의 구매장소

구매장소	빈도	비율(%)
가정(직접 또는 지인(知人)이 제작)	43	21.2
한복점이나 주단점	24	11.8
장 의사	78	38.4
병원	41	20.2
농협과 같은 수의를 취급하는 곳	10	4.9
기 타	7	3.5
합 계	203	100.0

의사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4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병원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20.2%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으며, 농협과 같이 수의를 취급하는 곳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4.9%를 차지하였다.

위와 같은 수의의 구매장소는 구매유형과 관련되었는데, 가정에서 만드는 경우는 소장하고 있는 한복감으로 제작하거나 수의의 옷감을 한복점에서 직접 골라 만들었다. 즉, 옷감을 따로 구입하거나 소장한 옷감으로 맞추는 경우는 28.1%였으며, 한복점에서 옷감을 사서 맞추는 경우는 23.6%, 그리고 기성복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다.

수의가격에 대해서는 먼저, 수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35.0%가 이미 수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가격의 분포를 보면, 20만원 이하에서 구매한 응답자는 7.0%로 미비하였으며, 50~100만원 정도에서 구매한 응답자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0만원 이상에 수의를 구매한 응답자도 18.3%로 이 중에는 조효숙·권영숙(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300만원대를 넘는 가격에 구매한 응답자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수의의 희망가격에 대한 질의에서는 41.8%가 20~5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20만원 이하의 수의가격에 대해서도 38.6%의 높은 응답율을 보여, 50만원 이하의 가격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50~1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6.4%였으며, 100만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에 지나지 않아 수의의 실제 구매가격과 희망가격에는

〈표 10〉 수의의 구매가격과 희망가격 비교

수의 가격	구매가격		희망가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만원 이하	5	7.0	120	38.6
20~50만원 정도	22	31.0	130	41.8
50~100만원 정도	31	43.7	51	16.4
100만원 이상	13	18.3	10	3.2
합 계	71	100.0	311	100.0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수의의 가격이 현대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보여준 예로 수의 가격조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10〉은 수의의 구매가격과 희망가격을 비교해 나타낸 것이다.

4.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과 구성·구매 견해와의 상관성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 응답자의 55.2%가 남녀수의 형태에 대해 변형 수의 형태를 선호하였고, 44.8%는 전통 수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80.2%가 변형수의 형태를, 19.8%만이 전통수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에 대한 의식차와 상관없이 수의를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의복으로 생각하여, 생활한복이나 현대 의복과 같은 간소하고, 다루기 쉬운 구성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74.8%가 수의는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의 61.7%는 수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수의에 대한 전통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수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수의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과 구성·구매 견해의 상관관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보존해야 한다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합 계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통수의 형태	103	44.8(86.6)	16	19.8(13.4)	119	(100.0)	23.497***
변형수의 형태	127	55.2(66.1)	65	80.2(33.9)	192	(100.0)	
합 계	230	100.0	81	100.0	311	100.0	
미리 준비해야 한다	172	74.8(84.7)	31	38.3(15.3)	203	(100.0)	37.497***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58	25.2(53.7)	50	61.7(46.3)	108	(100.0)	
합 계	230	100.0	81	100.0	311	100.0	

***p<.001

이와 대응하여 수의를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수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수의에 대한 전통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수의문화의 변화 속에서 병원이나 장의사에서 일괄처리 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수의 보존에 대한 의식이 수의의 구성이나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행 수의의 구성 및 유통과정이 간편함을 위주로 변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인들의 수의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면, 수의를 올바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선물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유통구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 결 론

수의문화는 우리민족이 오랜 세월동안 연속적으로 이어온 관습적 행위의 유산이다. 이러한 수의문화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것이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대에는 수의제작과 의식이 일괄처리 되면서 현대인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현대인들의 수의문화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 및 수의 구성, 구매에 관한 견해를 파악하여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 견해가 구성 및 구매 견해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적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방법으로 수의를 의례복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과거로부터 전해오던 전통이므로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화장을 하자는 의견에 맞추어 수의형식도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종교는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해 불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일수록, 소득 수준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집단일수록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의의 구성적 견해에 관해서 현대인들은 전통수의 형태보다 변형수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한복처럼 간소화되거나 현대 의복형태와 같아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변형수의 형태를 선호하였고, 종교는 기독교나 천주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가 불교에 비해 변형수의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의의 치수에 대해서는 현행 대·중·소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수의 소재에 있어서는 삼베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전통 수의가 대부분 명주로 제작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수의의 구매적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수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이 닳았을 때 경황이 없다는 것과 자식이나 주위에 번거러움을 주지 않으려는 견해가 90%에 이르렀다. 준비시기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윤달이나 길일을 택해 제작하기보다는 기회가 되었을 때 언제나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는 기성화된 수의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식은 연령과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수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불교를 종교로 갖는 응답자가 수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수의의 구매장소는 장의사나 병원 등에서 쉽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유형으로도 기성복을 선호하였다. 수의의 가격은 현행 구매가격보다 희망가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과 구성·구매 견해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와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 모두 변형수의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수의는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지만, 전통수의 형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갖는 응답자의 상당수는 수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에 대한 의식이 구성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전통수의 형식의 보존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면 수의의 구성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선물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유통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김용서, 안명숙(1999). 한국복식사. 교문사, 182-184.
 심부자, 전해숙(1986). 문익신묘의 출토복식. 한국복식학회, 10, 81-90.
 안명숙(2000).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靄川 高靈 출토유물. 광주민속박물관.
 유관순(1990).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희경, 김미자, 강순제(1989). 斂襲衣. 안동김씨 분묘 발굴조사 보고서. 온양박물관.
 이여성(1947). 조선복식고. 백양당.
 이은주(2000).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 복식 고찰.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이은주(1998). 金欽祖(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전기의 斂襲衣에 관한 고찰. 판결사 김흥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영주시.
 이은주, 박성실(2002). 조선시대 수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韓國의 壽衣文化. 신유.
 이재(1844). 사례편람.
 임린, 김용서(2001). 광주·전남지역 수의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복식학회, 51(2), 93-104.
 장인우, 이춘계(1995). 15-17세기 禮書에 나타난 斂襲衣와 그 의미. 한국복식학회, 25, 269-271.
 전영숙(1977). 수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1(2), 31-36.
 조효숙, 권영숙(2002).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수의문화. 韓國의 壽衣文化. 신유.
 조효숙, 안지원(2002). 현행수의의 실태 및 문제점. 한국복식학회, 52(3), 123-136.
 지춘상(1998). 남도민속학개설. 태학사.

(2003년 1월 10일 접수, 2003년 5월 27일 채택)